

# 서울 市內 男子高等學生들의 吸煙行態 및 知識에 關한 調查研究

李 承 煉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 目 次

I. 緒 論

II. 研究方法

III. 研究結果 및 考察

IV. 要約 및 結論

## I. 緒 論

### 가. 問題의 提起

담배가 우리나라에 傳來된 時期는 대략 1608~1610년경 日本으로 부터였다고 推定되고 있다. 初期에는 醫藥品으로 使用되어 진통제 구실을 하였으며 傷處의 止血 또는 化농방지제, 담치료제 등으로 利用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었다.<sup>1)</sup>

그러나 1951年 以後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害毒에 關한 광범위한 調査가 이루어져 그 有害성이 立證되었고<sup>2)</sup> 1957年 美國癌協會의 研究 結果 심한 肺癌 吸煙者는 非吸煙者에 비해 적어도 20倍나 肺癌에 걸릴 可能性이 많음을 시사하였다.<sup>3)</sup> 特히 成長期에 있는 靑少年의 吸煙은 健康 뿐아니라 教育的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의 여러나라에서는 未成年者 吸煙禁止法 내지는 판매 禁止法을 制定하여 靑少年들을 吸煙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sup>4)</sup> J. Salber등 여러 學者들이 靑少年 吸煙問題에 關해 많은 研究를 해오고 있다.<sup>5), 6), 7)</sup>

WHO에서는 1980年을 세계 禁煙의 해로 정하고 전세계적으로 禁煙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吸煙問題가 단순히 「피우느냐, 끊느냐」라는 個人的 차원에서가 아니라 「피울 權利와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權利」라는 吸煙者와 非吸煙者 間의 人權問題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담배소비량은 每年 增加하고 靑少年의 吸煙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靑少年의 吸煙에

關한 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져 靑少年들이 吸煙으로 인한 被害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研究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1970年代에 靑少年 吸煙에 關한 研究가 趙相文(1973)과 任台彬(1976) 민병근·이길홍(1976)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오늘날 靑少年들의 意識이나 社會·文化的 背景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들의 吸煙行態에 대한 내용을 再調査해 볼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身體와 精神健康에 影響을 주는 吸煙에 關한 知識을 高等學生들로 하여금 습득케하고 吸煙과 關聯된 要因을 분석하여 담배에 대한 保健教育에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나. 研究의 目的

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要因을 토대로 成長期에 있는 學生들에게 保健教育資料를 제공하는데 一般的인 目的이 있으며 吸煙者와 非吸煙者의 吸煙 有害에 대한 知識程度를 比較하고, 吸煙行爲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규명하는데 具體的인 目的이 있다.

## II. 研究方法

### 가. 調査對象

서울 市內에 所在하는 男子高等學校 中 人文系 7 個校, 實業系 3 個校를 任意選定하여 그 中 2 學年에서 各 2 個班을 選定하여 各各 812名, 324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는 人文系 高等學校와 實業系 高

等學校의 學生數 比率이 약 2.5:1인 점을 고려하였으며 地域別 안배를 위하여 서울市 17個區 中에서 10個區를 任意選定 하였다.

#### 나. 資料蒐集方法

1987年 5月 10日 부터 6月 10日 까지 1個月간 調査對象 高等學校 10個校 2學年 學生들에게 미리 준비된 設問紙를 배부하여 무기명으로 記入하도록 하였다.

應答者의 솔직한 答辨을 얻기 위하여 答印 선생님이 아닌 다른 先生님을 통하여 直接調査하여 回收하도록 하였다.

#### 다. 資料分析

調査對象 1,136名에게 設問紙를 배부하여 記入하도록 하였다. 이 중 記錄이 미비하거나 回收되지 못한 21부를 제외한 1,115부를 分析하였다.

이 資料는 SAS(Statistics Analysis System) Package Program을 통해서 處理했다.

分析方法是 吸煙群의 吸煙實態를 백분율로 比較하였으며, 吸煙者와 非吸煙者의 健康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및 吸煙行爲와 關聯된 要因分析은 X<sup>2</sup>檢定法에 의해서 檢證하였다.

### Ⅲ. 研究結果 및 考察

#### 가.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 1. 社會經濟的 特性

調査對象者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살펴 보면, 年齡別 分布는 應答者의 70.1%가 17세로 가장 많고 다음이 16세로 23.0%이며, 18세가 5.6%, 19세가 1.0%, 15세가 0.3%의 순위였다.

주거상태를 보면 應答者의 66.7%가 자택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세로 24.6%이며, 월세가 5.8%, 친척집이 1.3%, 자취가 1.2%, 하숙이 0.4% 순위였고, 學校類型은 人文系가 71.6%, 實業系가 28.4%였다. (表1 參照)

##### 2. 調査 對象者의 吸煙 有無 狀態

吸煙 有無 狀態을 살펴보면 전혀 吸煙한 經驗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9.58%이고 吸煙한 經驗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42%로 나타났다. 吸煙한 經驗이 있다고 應答한 60.42%중에서 吸煙經驗은 있으나 現在 전혀 吸煙하지 않음이 19.66%, 가끔 吸煙

한다는 경우가 23.28%, 習慣적으로 吸煙한다는 경우는 17.48%로 각각 나타났다. (表2 參照) 이 調査에서 吸煙群은 가끔 吸煙한다고 應答한 23.28%와 習慣적으로 吸煙한다고 應答한 17.48%를 합친 것이다. 가끔 吸煙한다와 習慣적으로 吸煙한다가 40.76%로 나타난 것은 趙相文(1973)의 연구에서 보여준 26.5%와<sup>9)</sup> 任台彬(1976)의 研究에서 나타난 26.08%<sup>10)</sup>보다 월등히 높은 比率이다. 이는 靑少年들의 吸煙比率이 높아지고 있으며<sup>8),11)</sup> 高等學校學生들의 吸煙問題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1 社會經濟的 特性

		N	%
年 齡	15세	3	0.3
	16세	256	23.0
	17세	782	70.1
	18세	63	5.6
	19세	11	1.0
住居狀態	自宅	744	66.7
	傳貰	274	24.6
	月筵	66	5.8
	자취	13	1.2
	下宿	4	0.4
	친척집	14	1.3
學校類型	人文系	798	71.6
	實業系	317	28.4
計		1115	100.0

表2 吸煙有無分類

	N	%
전혀 吸煙한 經驗이 없다.	437	39.58
吸煙한 經驗이 있다.	667	60.42
(가) 吸煙經驗은 있으나 現在 전혀 吸煙하지 않음	(217)	(19.66)
(나) 가끔 吸煙하다.	(257)	(23.28)
(다) 習慣적으로 吸煙한다.	(193)	(17.48)
計	1,104	100.00

#### 나. 吸煙實態

全體 應答者中 現在 吸煙하고 있는 吸煙群 450名 (40.76%)에 대한 吸煙實態를 分析하였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最初 吸煙時期

最初 吸煙時期는 “高等學校”때 처음 흡연한 사람이 47.2%로 가장 많고 “中學校”가 38.4%, “國民學校”가 14.4% 순위로 나타났다. (表3 參照) 그런데

趙相文(1973)의 研究에서는 最初 吸煙 時期가 “高等學校”에 36.4%, “中學校”에 51.9%이고<sup>9)</sup> 任台彬(1976)의 研究에서는 “高等學校”에 36%, “中學校”에 47.5%로 나타났다.<sup>10)</sup> 이들 研究과 차이가 나는 것은 本 研究에서는 吸煙者群은 과거의 吸煙經驗者를 變 現在의 吸煙만을 對象으로 한데 原因이 있다고 본다.

表 3 最初 吸煙時期

	N	%
國民學校	65	14.4
中學校	173	38.4
高等學校	212	47.2
計	450	100.0

### 2. 最初 吸煙 動機

最初 吸煙 動機를 보면 “호기심”이 52.9%로 가장 많고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26.0%로 다음이고, “精神的 갈등”이 15.6%, “어른된 기분”이 4.2%, “체중조절”이 1.3%순위로 나타났다. (表 4 參照) 이는 담배 消費實態調查(1983) 및 민병근과 이길홍(1976)의 研究에서도 “호기심”이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로 나타나 이들 모든 調查에서 호기심과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吸煙 動機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8),12)</sup>

表 4 最初 吸煙動機

	N	%
호기심	238	52.9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17	26.0
어른된 기분	19	4.2
精神的 葛藤	70	15.6
體重調節	6	1.3
計	450	100.0

### 3. 吸煙量

1日 吸煙量을 보면 “5개피 以下”가 52.0%로 가장 많고 “5-10개피”가 26.2%, “10-15개피”가 11.8%, “15-20개피”가 5.8%, “20개피 以上”이 4.2%의 순위로 나타났다. (表 5 參照) Meade와 Wald(1973)은 1일 捲린 15개피 以下의 吸煙을 Light Smoking, 1일 捲린 15개피 以上의 吸煙을 Heavy Smoking으로 분류하였으며,<sup>13)</sup> 本 研究에서 Heavy Smoking은 10.0%로 나타나 高等學生들의 담배에 관한 教育의 중요성이 대두 되어 지고 있다.

表 5 1日 吸煙量

	N	%
5개피 以下	234	52.0
5-10개피	118	26.2
10-15개피	53	11.8
15-20개피	26	5.8
20개피 以上	9	4.2
計	450	100.0

### 4. 一般의 吸煙 場所

일반적 흡연 장소를 보면 “장소와 무관하다”가 46.7%로 가장 많고 “화장실”이 18.4%로 다음이고 “자기집”은 13.6%, “유홍장” 13.3%, “친구집”이 7.1%, “학교교실”이 0.9%의 순위로 나타났다. (表 6 參照) “場所와 무관하다”가 46.7%로 가장 많은 것은 (表 2)에서와 같이 吸煙群 中 習慣의으로 吸煙을 하는 學生이 42.9%인점으로 미루어 보아 習慣의으로 吸煙충동을 느낄때면 正해진 場所와 관계없이 吸煙하는 것으로 料된다. 또한 교복 및 두발 自由화로 學生身分이 외양상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어느 場所에서나 吸煙하기에 부담을 느낄 소지가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表 6 一般의 吸煙場所

	N	%
자 기 집	61	13.6
화 장 실	83	18.4
遊 興 場	60	13.3
친 구 집	32	7.1
學 校 教 室	4	0.9
場所와 무관	210	46.7
計	450	100.0

### 5. 담배 入手經路

담배 入手經路를 보면 “직접산다”가 71.7%로 가장 많고, “친구것을 함께 피운다”가 20.7%로 다음이며, “집에 있는 것을 피운다”가 4.0% 그밖에 “기타”가 3.6%순위로 나타났다. (表 7 參照)

表 7 담배 入手經路

	N	%
직접산다	322	71.7
친구것을 함께 피운다	93	20.7
집에 있는 것을 피운다	19	4.0
기 타	16	3.6
計	450	100.0

(表5)의 1일 吸煙에서 나타난 것처럼 5개과 以上 吸煙하는 學生이 48.0%인 것으로 보아 매일 타인의 담배를 취하여 吸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곤란하여 직접사서 吸煙하는 學生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6. 吸煙하는 主理由

吸煙하는 主理由를 보면 “무료해서”가 30.0%로 가장 많고 “기분이 나빠서”가 21.1%,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20.5%, “심리적인 불안”이 16.8%, “기분이 좋아서”가 6.4%, “공부할때”가 3.1%, “기타”가 2.2%의 순위였다(表8 參照)

表8 吸煙하는 主理由

	N	%
기분이 좋아서	29	6.4
기분이 나빠서	95	21.1
심리적인 불안	75	16.8
무료해서	135	30.0
공부할때	14	20.5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92	2.2
기 타	10	100.0
計	450	

이는 任台彬(1976)의 研究에서 “심심할때” 29.6%, “기분이 나빠서” 24.8%와 근사하였다.<sup>10)</sup>

7. 本人이 吸煙하는 사실을 他人이 認知하는 程度

本人이 吸煙하는 사실을 他人이 認知하는 정도를 보면 “친한 친구만 안다”가 48.2%로 가장 많고 “가족중 일부만 안다”가 17.1%로 다음이며, “가족 모두 안다”가 16.7%, “주위사람 모두 안다”가 10.9%, “아무도 모른다”가 7.1% 순위로 각각 나타났다.(表9 參照)

表9 本人이 吸煙하는 사실을 他人이 認知하는 程度

	N	%
친한 친구만 안다	217	48.2
가족중 일부만 안다	77	17.1
가족 모두 안다	75	16.7
주위사람 모두 안다	49	10.9
아무도 모른다	32	7.1
計	450	100.0

이는 崔의순 박재순(1980)의 研究에서 “가까운 친구만 안다”가 55.83%, “가족중 일부만 안다”가 22.09%, “주위사람 모두 안다”가 11.96%, “가족 모두 안다”가 10.12%의 순위로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sup>14)</sup> 즉 吸煙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8. 앞으로 吸煙에 대한 태도

앞으로 吸煙에 대한 태도를 보면 “禁煙의사는 있으나 자신없다”가 45.8%로 가장 많고 “禁煙하겠다”가 30.9%로 다음이었다. “금연하겠다”가 30.9%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學生들에게 적극적인 禁煙教育을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表10 參照)

表10 앞으로 吸煙에 대한 態度

	N	%
禁煙하겠다	139	30.9
禁煙하지 않겠다	105	23.3
禁煙意思是 있으나 자신없음	206	45.8
計	450	100.0

다. 吸煙者와 非吸煙者의 健康知識 程度 比較

吸煙이 人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對한 吸煙者와 非吸煙者 間의 知識程度의 차이를 比較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吸煙과 疾病發生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吸煙과 疾病發生에 對한 知識程度를 比較해 보면 吸煙이 疾病을 일으킨다에 應答한 學生中에서 吸煙群은 79.78%, 非吸煙群은 92.20%로 非吸煙群이 높았으며, “疾病을 일으키지 않는다”에는 吸煙群은 20.22% 非吸煙群은 7.80%로 吸煙群이 높게 나타났다. 즉 吸煙과 疾病發生 여부에 對한 知識程度는 양군間에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表11 參照)

表11 吸煙과 疾病發生에 對한 知識程度

	吸煙群		非吸煙群	
	N	%	N	%
疾病을 일으킨다	359	79.78	603	92.20
疾病을 일으키지 않는다	91	20.22	51	7.80
計	450	100.00	654	100.00

p(0.0005)

2. 吸煙과 頭腦活動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吸煙이 頭腦活動에 對한 知識程度를 比較해 보면 吸煙이 頭腦活動을 “저하 시킨다”에는 吸煙群에서 75.33%, 非吸煙群에서 83.49%로 非吸煙群이 높았으며, “상승시킨다”가 各各 3.56%, 0.61%, “무관하다”가 8.44%, 3.36%, “잘모른다”가 12.67%, 12.54%로 吸煙과 頭腦活動에 對한 知識程度는 吸煙群에 비해 非吸煙群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吸煙과 頭腦活動 對한 知識程度는 (表12)에서와 같

이 양군간에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005$ ).

表12 吸煙과 頭腦活動에 대한 知識程度

	吸煙群		非吸煙群	
	N	%	N	%
低下시킨다	339	75.33	546	83.49
上昇시킨다	16	3.56	4	0.61
무관하다	38	8.44	22	3.36
잘 모른다	57	12.67	82	12.54
計	450	100.00	654	100.00

$p < 0.0005$

吸煙이 頭腦活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Vermont大學의 Bush는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結果, 표현력, 지각력, 연상력이 10%가 저하된다고 보고했고 Autioch大學의 Evarp는 흡연자가 장학금을 받는율이 낮다고 하였다.<sup>15)</sup>

### 3. 吸煙과 壽命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吸煙과 壽命에 對한 知識程度을 보면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라고 應答한 學生中에서 吸煙群은 77.78%, 非吸煙群은 87.31%로 非吸煙群이 높았으며 “延長시킨다”가 吸煙群은 2.67%, 非吸煙群은 0.92%, “무관하다”가 各各 13.11%, 3.97%, “잘모른다”가 6.44%, 7.80%로 나타나 吸煙과 壽命에 對한 知識程度은 吸煙群에 비해 非吸煙群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吸煙과 壽命과의 관계에 對한 知識程度은 <表13>에서와 같이 양군간의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005$ )

表13 吸煙과 壽命에 對한 知識程度

	吸煙群		非吸煙群	
	N	%	N	%
短縮시킨다	350	77.78	571	87.31
延長시킨다	12	2.67	6	0.92
무관하다	59	13.11	26	3.97
잘모른다	29	6.44	51	7.80
計	450	100.00	654	100.00

$p < 0.0005$

이는 김희경(1978)의 研究와 같은 結果였다.<sup>16)</sup> Hammond(1962)은 1日 吸煙量과 死亡率과의 관계를 研究하여 하루에 2갑 以上의 捲煙을 피우는 男子는 非吸煙者보다 2.25배나 死亡率이 높음을 보고 하였다.<sup>17)</sup> Hawthorne(1978)은 吸煙과 死亡率에 對한 研究報告에서 壽命의 단축도와 吸煙量이 비례한다고 밝혀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킴을 증명하였다.<sup>18)</sup>

### 4. 吸煙과 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吸煙과 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을 比較해보면 타르에 應答한 學生中에서 吸煙群이 23.53%, 非吸煙群이 19.15%이고 “CO”에는 吸煙群이 9.89%, 非吸煙群이 10.41%, “니코틴”에는 各各 63.77%, 68.31%, “암모니아”에는 1.87%, 1.23%, “석탄산”에는 0.94%, 0.9%로 나타나 吸煙과 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은 양군간에 비슷하게 반응하였다. <表14 參照>

表14 吸煙과 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

	吸煙群		非吸煙群	
	N	%	N	%
타르	176	23.53	171	19.15
CO	74	9.89	93	10.41
니코틴	477	63.77	610	68.31
암모니아	14	1.87	11	1.23
석탄산	7	0.94	8	0.90
計	748	100.00	893	100.00

註) 1인 1답이상 가능케 함

담배 연기 속에는 수백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크게 보아 니코틴, 타르, CO, 그리고 암모니아등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타르속에는 수십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各 臟器에 癌을 일으키며, 니코틴은 담배中毒을 일으키는 주범임과 동시에 頭痛 口吐 현기증 그리고 血관을 收縮시키는 役割을하고 CO는 타고있는 무연탄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效果를 나타낸다. 또한 계속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모든 臟器가 약5~8년 빨리 늙는다는 것도 밝혀졌으며 男子의 平均壽命이 女子보다 5~6년 짧은데 이것은 男子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려졌다고 하였다.<sup>14)</sup>

5.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對한 知識程度 比較

表15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對한 知識程度

	吸煙群		非吸煙群	
	N	%	N	%
肺 癌	210	41.50	532	37.36
肝臟疾患	138	27.28	452	31.74
口腔疾患	76	15.02	256	17.98
위장질환	20	3.95	25	1.75
心臟病	62	12.25	159	11.17
計	506	100.00	1424	100.00

註) 1인 1답이상 가능케 함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對한 知識程度를 比較해 보면 “肺癌”에서 吸煙群은 41.50%, 非吸煙群은 37.36%, “肝臟疾患”에서 吸煙群은 27.28%, 非吸煙群은 31.74%, “口腔疾患”에서는 各各 15.02%, 17.98%, “胃臟疾患”은 3.95%, 1.75%, “心臟病”에는 12.25%, 11,17%로 나타나 吸煙群에 비해 非吸煙群에서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對한 知識程度는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表15 參照)

담배의 毒性物質로 인해 吸煙시 直接的으로 영향을 받는 肺, 咽喉, 口腔, 食道 등의 疾患은 말할 것도 없고 膀胱, 腎臟, 椎間盤痛 등도 發生한다. 또한 非吸煙者에 비해 吸煙者의 경우 肺癌은 7배 肝癌은 1.5배, 口腔癌은 4.58배, 心臟病은 3배가 더 많이 發生한다.<sup>20)</sup>

### 라. 吸煙行爲와 관련된 要因分析

吸煙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分析은 吸煙群과 非吸煙群을 學校 類型에 따라 各 要因들과 比較해 보았으며, 아울러 各 要因과 全般的인 吸煙行爲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比較分析해 보았다.

#### 1. 學校類型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實業系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人文系”가 30.33%, “實業系”가 65.62%로 “實業系”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人文系”가 69.57% “實業系”가

34.38%로 人文系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實業系에서 吸煙하는 傾向이 人文系에 비해 더 높았다.

즉 (表16)에서와 같이 人文系·實業系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005$ )

表16 學校類型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吸煙		非吸煙		計	
	N	%	N	%	N	%
人文系	242	30.33	552	69.57	798	100.00
實業系	208	65.62	102	34.38	317	100.00

p(0.0005)

#### 2. 大學進學 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大學進學 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에서는 “進學하지 않겠다”는 比率이 매우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에서는 “進學하겠다”는 比率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實業系에서도 같은 結果를 보였지만 人文系만큼 比率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一般的으로 吸煙한 學生中에서는 進學하겠다에 응답한 學生이 36.00%, “進學하지 않겠다”가 65.36%로 “進學하지 않겠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非吸煙하는 學生 中에서 進學하겠다에 응답한 學生이 64.00%, “進學하지 않겠다”가 34.64%로 “進學하지 않겠다”는 學生 中에서 吸煙하는 傾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大學 進學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17)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005$ )

表17 大學進學與否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進學하겠다	302	42.84	403	57.16	705	100.0	31	14.09	189	85.91	220	100.0	333	36.00	592	64.00	925	100.0
進學하지 않겠다	76	100.0	0	0	76	100.0	41	39.81	62	60.19	103	100.0	117	65.36	62	34.64	179	100.0

p(0.0005)

表18 飲酒經驗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飲酒經驗없음	4	2.63	148	97.37	152	100.0	5	10.87	41	89.13	46	100.0	9	4.55	189	95.45	198	100.0
한번정도의 飲酒	6	7.32	76	92.68	82	100.0	8	26.67	22	73.33	30	100.0	14	12.50	98	87.50	112	100.0
두번정도의 飲酒	15	17.44	71	82.56	86	100.0	16	34.04	31	65.96	47	100.0	31	23.31	102	76.69	133	100.0
여러번 飲酒	219	51.17	209	48.83	428	100.0	116	71.71	47	28.83	163	100.0	335	56.68	256	43.32	591	100.0
習慣的 飲酒	35	81.40	8	18.60	43	100.0	26	100.00	0	0	26	100.0	61	88.41	8	11.59	69	100.0

p(0.0005)

3. 飲酒經驗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에서는 飲酒經驗의 빈도가 많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에서는 반대로 飲酒經驗 빈도가 적었다. 그리고 實業系에서도 같은 結果를 보였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 中에서 飲酒經驗없다에 응답한 학생이 4.55%, “한 번 정도의 飲酒”는 12.50%, “두번 정도의 飲酒”는 23.31% “여러번의 飲酒”는 56.68%, “習慣의 飲酒”가 88.41% 이고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飲酒經驗없다에 응답한 학생이 95.45%, “한번 정도의 飲酒”가 87.50%, “두번 정도의 飲酒”가 76.69%, “여러번의 飲酒”가 43.32%, “習慣의 飲酒”가 11.59%로 나타나 飲酒經驗이 많을수록 吸煙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表18 參照)

本 調査에서는 吸煙行爲와 飲酒經驗과의 관계는 매우 유의한 차( $p < 0.0005$ )로 나타나 吸煙과 飲酒를 연관지어서 教育시키는 것이 더 効果적인 것으로 사

表19 용돈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 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5000원이하	30	20.13	119	79.87	149	100.0	48	40.68	70	59.32	118	100.0	78	29.21	189	70.79	267	100.0
5000원~10,000원	53	30.11	123	69.89	176	100.0	59	61.46	37	38.54	96	100.0	112	41.18	160	58.82	272	100.0
10,000원~15,000원	59	31.05	131	68.95	190	100.0	31	67.39	15	32.61	46	100.0	90	38.14	146	61.86	236	100.0
15,000원~20,000원	51	39.53	78	60.47	129	100.0	15	78.95	4	21.05	19	100.0	66	44.59	82	55.41	148	100.0
20000원이상	70	48.28	75	51.72	145	100.0	33	97.06	1	2.94	34	100.0	103	57.54	76	42.46	179	100.0

$p < 0.0005$

5. 이성교제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이성교제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에서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實業系에서도 같은 結果를 보였지만 人文系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이성교제를 하

表20 이성교제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 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이성교제하고있음	149	55.60	119	44.40	268	100.0	84	54.12	47	35.88	131	100.0	233	58.40	166	41.60	399	100.0
이성교제하지않음	131	25.10	391	74.90	522	100.0	86	46.99	97	43.01	183	100.0	217	30.78	488	69.22	605	100.0

$p < 0.0005$

료된다.

4. 용돈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용돈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은 용돈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보였으며, 非吸煙하는 學生은 적게 쓰는 경향을 나타냈다. 實業系에서도 같은 結果를 보였지만 比率의 차이는 人文系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5,000원 이하에 응답한 學生이 29.21%, “5,000~10,000원”은 41.18%, “10,000~15,000”은 38.14%, “15,000~20,000”은 44.59%, “20,000원 이상”은 57.54%이고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5,000 원 이하에 응답한 學生이 70.79%, “5,000~10,000”은 58.82%, “10,000~15,000”은 61.86%, “15,000~20,000”은 55.41%, “20,000원이상”은 42.46%로 나타나 용돈을 많이 쓸수록 吸煙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즉 용돈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19)에서 와 같이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005$ )

고 있다가 응답한 學生이 58.40%,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가 30.78%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가 매우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가 응답한 學生이 41.60%,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가 69.22%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群에서 吸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20)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05$ )

이는 任台彬의 研究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學生이 吸煙경향이 높음과 동일한 결과였다.

6. 學業成績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學業成績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學業成績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였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學業成績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實業系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20등以下에 응답한 學生이 32.60%, “20등~40등”이 47.95%, “40등 以上”이 59.00%이고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20등以下에 응답한 學生이 67.40%, “20등~40등”이 52.05%, “40등以上”이 41.00%로 成績이 낮을수록 吸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學業成績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21)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005))

表21 學業成績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20등이하	95	23.99	301	76.01	396	100.0	97	50.26	96	49.74	193	100.0	192	32.60	397	67.40	589	100.0
20~40등	122	39.87	184	60.13	306	100.0	77	70.64	32	39.36	109	100.0	199	47.95	216	52.05	415	100.0
40등이상	47	55.29	38	44.71	85	100.0	12	80.00	3	20.00	15	100.0	59	59.00	41	41.00	100	100.0

p(0.0005)

7. 씨클加入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씨클加入 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씨클加入率이 씨클 非加入率보다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씨클非加入率이 씨클加入率보다 높았다.

實業系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씨클에 加入했

다에 응답한 學生이 49.80%, “씨클에 加入하지 않았다”가 37.90%이고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씨클에 加入했다에 응답한 學生이 50.20%, “씨클에 加入하지 않았다”가 62.10%로 씨클에 加入하는 學生이 吸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씨클 加入여부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22)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를 보였다. (p<0.005)

表22 씨클加入 與否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씨클加入	79	44.89	97	55.11	176	100.0	48	60.76	51	39.24	79	100.0	127	49.80	128	50.20	255	100.0
씨클非加入	191	31.36	418	68.64	609	100.0	130	54.62	108	45.38	238	100.0	321	37.90	526	62.10	847	100.0

p(0.005)

表23 家族中 吸煙者 有無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있다	219	38.3	353	61.7	572	100.0	141	53.61	122	46.39	263	100.0	360	43.11	475	56.89	835	100.0
없다	70	30.7	158	69.3	228	100.0	20	48.78	21	51.22	41	100.0	90	33.46	179	66.54	269	100.0

p(0.005)

8. 家族中 吸煙者 有無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家族中 吸煙者 有無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家族中 吸煙者가

있다는 率이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家族中 吸煙者가 없다는 率이 높았다. 實業系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



에서 있다에 응답한 학생이 43.11%, “없다”가 33.46%로 “있다”가 조금 높았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있다에 응답한 학생이 56.89% “없다”가 66.54%로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즉 家族中 吸煙者有無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23)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05$ )

#### 9. 家族狀況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家族狀況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實業系의 吸煙하는 學生 및 非吸煙하는 學生 모두

表24 家族狀況과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兩父母生存	228	31.40	498	68.60	726	100.0	170	62.73	101	37.27	271	100.0	398	39.92	599	60.08	997	100.0
편부	8	57.14	6	42.86	14	100.0	2	28.57	5	71.43	7	100.0	10	47.62	11	52.38	21	100.0
편모	22	46.81	25	53.19	47	100.0	17	50.00	17	50.00	34	100.0	39	48.15	42	51.85	81	100.0

$p > 0.05$

#### 10. 經濟狀態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經濟狀態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면 人文系의 吸煙하는 學生은 經濟水準이 높고 非吸煙하는 學生은 經濟水準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實業系의 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經濟狀態가 上 이라고 응답한 學生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中”, “下”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는 經濟狀態가 “上”이라고 응답한 學生이 낮은 비율을 나타내

家族狀況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를 보이지 않았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父母가 生存한다고 응답한 學生이 39.92%, “편부”가 47.62%, “편모”가 48.15%로 나타났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父母가 生存한다고 응답한 學生이 60.08%, “편부”가 52.38%, “편모”가 51.85%로 나타났다. 즉 家族狀況과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表24)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

고 “中”, “下”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一般的으로 吸煙하는 學生中에서 經濟狀態가 上 이라고 응답한 學生이 55.17%, “下”가 41.05%, “中”이 40.12%순으로 나타났으며, 非吸煙하는 學生中에서 經濟狀態가 中이라고 응답한 學生이 58.8%, “下”가 58.95%, “上”이 44.83%순으로 나타나(表25 參照) 經濟狀態와 吸煙行爲와의 關係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

表25 經濟狀態와 吸煙行爲와의 關係

	人文系						實業系						合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小計		吸煙		非吸煙		合計	
	N	%	N	%	N	%	N	%	N	%	N	%	N	%	N	%	N	%
上	9	45.00	11	55.00	20	100.0	7	77.78	2	22.22	9	100.0	16	55.17	13	44.83	29	100.0
中	242	36.83	415	63.17	657	100.0	97	51.60	91	49.40	188	100.0	339	40.12	506	59.88	845	100.0
下	27	23.89	86	76.11	113	100.0	67	57.76	49	42.24	116	100.0	94	41.05	135	58.95	229	100.0

$p > 0.05$

### IV. 要約 및 結論

本研究은 1987年 5月 10日 부터 6月 10日 까지 서울 市內에 所在하는 男子高等學校(人文系 7個校, 實業系 3個校)에 在學 중인 2學年 學生 1,115名을 對象으로 吸煙에 對한 行態 및 知識程度와 吸煙行爲에 關聯된 要因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調查 對象者 1,115名 中 吸煙하고 있는 學生은 450名으로 40.76%이었다.

2. 最初 吸煙時期는 “高等學校”가 47.1%, “中學校”가 38.4%, “國民學校”가 14.4%의 順位였다.

3. 吸煙動機는 “호기심”이 52.9%,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26.0%로 나타났다.

4. 1일 吸煙量은 “5개피 이하”가 52.0%이고, “5~10개피”가 26.2%, “10~15개피”가 11.8%, “15~20

개피"가 5.8%, "20개피 이상"이 4.2%의 順位였다.

5. 一般的 吸煙場所는, "場所와 無關하다"가 46.7%, "화장실"이 18.4%, "자기집"이 13.6%, "유흥장"이 13.3%로 나타났다.

6. 吸煙하는 主 理由는 "무료해서"가 30.0%로 가장 많고, "기분이 나빠서"가 21.1%,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20.5%, "심리적 불안"이 16.8%, "기분이 좋아서"가 6.4%의 順位였다.

7. 本人이 吸煙하는 事實을 他人이 認知하는 程度는 "친한 친구만 안다"가 48.2%, "가족중 일부만 안다"가 17.1%, "가족 모두 안다"가 16.7%, "주위 사람 모두 안다"가 10.9%, "아무도 모른다"가 7.1%로 나타났다.

8. 앞으로 吸煙에 대한 態度는 30.9%만이 "禁煙하겠다"고 應答하였다.

9. 吸煙과 疾病發生 여부, 吸煙과 頭腦活動, 吸煙과 壽命 등에 관한 知識程度는 非吸煙群이 吸煙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005$ )

10. 吸煙과 담배의 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는 吸煙群과 非吸煙群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1.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知識程度는 非吸煙群이 吸煙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大學에 進學하겠다는 學生比率는 吸煙群에 비해 非吸煙群에서 높았으며, 實業系는 人文系보다 吸煙하는 學生이 많았다. ( $p < 0.0005$ )

13. 經濟狀態 및 가족상황은 吸煙群과 非吸煙群間的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 $p > 0.05$ )

14. 이성교제. 음주경험 정도, 한달 용돈은 非吸煙群에 비해 吸煙群에서 높았다. ( $p < 0.0005$ )

15. 吸煙群은 非吸煙群에 비해 家族中 吸煙者가 많았으며, 씨클가입도 높게 나타났다. ( $p < 0.0005$ )

### 參考文獻

1. 임 규찬, 금연고지를 점령한 용사들, 월간 2000년, 1986, pp.66-69.
2.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

fare: Summaries and Conclusions Smoking and Health, The American Cancer Society, Inc, 1968, pp.107-112.

3. 오 형석, 대학보건,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6, pp.101-122.
4. 佐々木忠正, "タバコの疫學"「診斷と治療」, No.59 (1971. 6) p.69.
5. Eva J. Salber, Smoking Among Teen Agers Bull. New York Acad. med. 1968. pp.1521-1525.
6. Jerrold. Greenberg, Zenon Peputat, Smoking Intervention: Comparing Three Methods in a High School Setting,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1978, pp.498-502.
7. Larry A. Tucker,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Lifestyle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Classified According to Cigarette Smoking Intervention Statu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55. No. 4, 1985, pp.127-131.
8. 전매청, 담배소비실태조사, 1985, pp.1-22.
9. 조 상문, 한국 高等學生들의 吸煙에 關한 調查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3.
10. 任台彬, 高等學生의 吸煙實態調查 및 그 善導方案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76
11. 리빙뉴스, 1986, 5, p.18.
12. 민 병근, 이 길홍, 한국 청소년의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13. Meade, T. W. & Wald, N. J. Cigarette Smoking Patterns During the Working day. Brit. J. Preve. Soci. Med., 31, 1985, pp.25-29.
14. 최 의순, 박 재순: 서울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간호학과, 1980.
15. 권 이혁: 최신 보건학, 신광출판사, 1984, pp.55-72.
16. 김 경희: 우리나라 男子大學生들의 吸煙實態에 關한 調查, 碩士學位 論文,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8.
17. Hammond, E. C. & Mon, D. Smoking & Death Rates J. A. M. A., 166, 1958, p.1159.
18. Hawthorne, V. M. Smoking & Health. J. Epi. Comm. Health, 32(4), 1978, pp.260-266.
19. 보건세계, 대한결핵협회, 1988. 4, pp.12-15.
20. 월간대응, 주식회사 대응계약, 1988.3.